



심화·이기선

대안스님 인사법 따르자

모든 사람은 아침에 만나 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냄새를 맡거나 꼬리를 흔들면서 짐승나름의 인사를 한다. 날짐승인 새들도 짹짹거리면서 인사를 한다. 인사처럼 정겨운 것은 없다.

구사를 합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소잔하고 말 것이다. 일찍이 신라시대에 위대한 절승이 살았다. 그 이름은 대안이라고 했다. 대안인지 아니면 환상 '대안, 대안'이라고 노래처럼 불러서 대안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대안스님은 서라벌 방방곡곡

보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노 래가 되었을 것이다.

사실 대안스님이 '대안 대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한문으로 표기된 '大安'일까, 아니면 '잘 살아, 잘 사세'였는 데 표기하다 보니 한문의 '大安'이 되었는지 모른다.

아무튼 신라의 절승이었던 대안스님은 일제강점기를 만나 면 '잘 살아, 잘 사세' 이렇게 기도하고 발원하였을 것이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눈 앞이 휘황해져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가 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 자기 자신만 배우고 편안하면 잘 사는 것으로 오 관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아닌 남이 편안하여야 한다. 남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근원적이고 심원한 삶의 철학을 익히게 된 분이 대안스님이다. 그러므로 스님을 깨친 자라노래로 한 것이다. 즉 그것이 '잘 살아, 잘 사세'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이익 사회로 아니면 경제동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가면 자연 이 사회는 경쟁만이 남아 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치유하기 위하여 인사법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잘 살았소' '밥 잘먹었소' 하고 정치 적 불만, 경제적 불균형만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 언어 속에 스며들고 항상 노래되어 다른 중생을 행복하게 열원하고 발원하는 인사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마치 대안스님이 저자거리에 헤매고 있는 저 거렁뱅이에게 부드러운 노래를 들려주는 '대안 대안' '잘 사세, 잘 사세'하는 노래인사가 불교적 인사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목재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大安

'방새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인사가 반사이에 어떠한 위계의 사안이 없었느냐 하는 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진지 잡수셨느냐'는 인사는 빈곤과 기근에 휩싸일 때 안락함으로 내뿜는 인사일 것이다.

사회적 정황에 따라 인사도 여러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중요하게 되면 자연히 인사도 중요하고 정답게 될 것이다. 잠을 잘 잤느냐, 밥을 먹었느냐 하는 인사는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습속에서 찌들린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철학의 빈곤이요, 언어 구사의 맹목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처럼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인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주연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건배' '위하' '지하' '저' 등 온갖 인사법이 있지만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다. 건배하면서 잔을 비우기 시작하는 과다음주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표현, 지화자 하면 좋다 하는 낙천성을 주다. 이 모두가 몸을 해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언어는 사상을 전달하고 사상은 문화를 창조한다. 그러나 첫번째 언어가 심오한 사상이 담겨지도록 노력하고,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정서적으로 개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를 누비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안 대안'이라고 인사를 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닐 것이다. 열열하고 기도 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대안이요, 병든 사람을 만나도 대안, 힘이 있거나 부자를 만나도 한결같이 대안이라 하니 여기에는 어떤 주술적 신비가 서려 있을 것이 다.

가난한 사람이 이 대안이란 주연에 의하여 빈천보를 벗어나게 하고픈 열원이 깃들어 있고, 병든 사람은 온갖 질병의 수렁에서 완쾌의 건강을 회복하라고, 힘이 있어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이 대안이란 주연을 듣게 되면 힘 없이 가물거리게 사람에게 요역을 주는 대장부가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또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이 대안의 노래를 들으면 삼문칭정행의

"이제 피사체로부터 해방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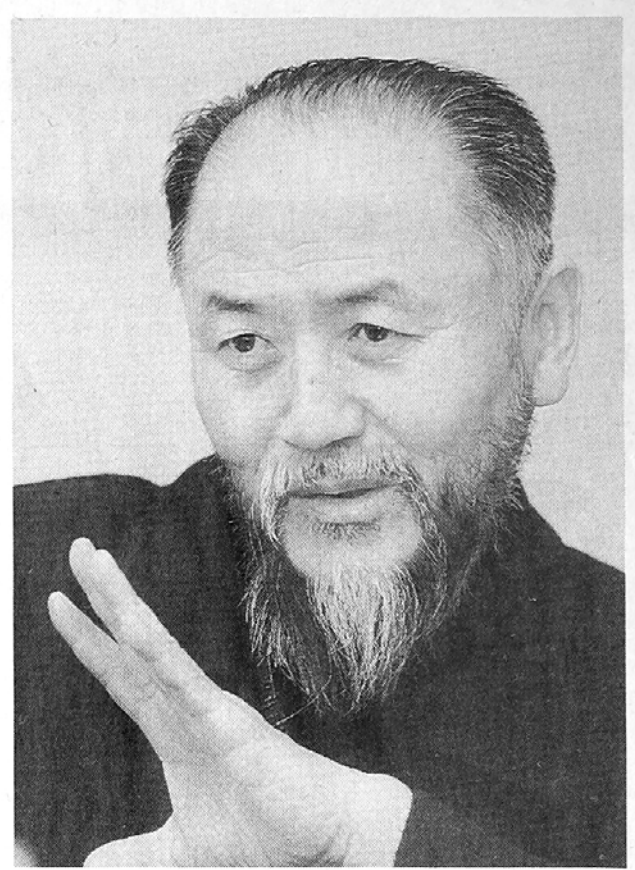
"일부러 인물만을 찍으려 하지 않 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봐도 신 기하기 이틀에 없습니다"

25년 사진작가 생활을 해온 육명심 씨(62, 서울 예술전문대 교수)는 지난 해 처음으로 사진집을 내게됐다. 화갑을 맞아 후배와 제자들의 간곡한 청으로 오랜동안 찍어온 사진중 85개의 사진을 골라 담았다. 두툼한 사진집에는 가지각색의 얼굴들이 담겨 있다. 신기어린 무당, 무섭게 이빨을 드러

던 그가 80년대 초 또 대상을 옮기면 다. 장승으로.

마을어귀나 뒷산, 길가에 세워져 마을을 지켜준다는 장승, 악귀를 쫓는다는 그것은 힘겨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만 장승은 한국인의 얼굴을 똑 닮았다.

그런 그가 지난 82년 부석사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무량수정 가는 길에 7세기경에 만든 석탑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천 삼



산문박의 禪

사진작가 육명심 교수

낸 천하대장군, 어린아이처럼 천진스럽게 웃고 있는 스님, 아들을 낳고 싶은 여인들에게 코가 문드러진 석불, 제사 올리고난 제주(祭主)의 엄숙한 얼굴, 비닷가에서 조개를 줍다 잡이 들어 버린 노파...

육명심씨가 제일 먼저 피사체로 잡은 대상은 예술가다. 성공했거나 회 열에 잠긴 예술가의 얼굴이 아니라 고통에 빠진 예술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창작에 몰두로 생각에 잠긴 얼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으로 고뇌에 잠긴 모습...

백년 세월을 건너 뛰어 탐과 마주하 니 감개가 무량해 지더라구요. 감개에 젖어 무량수정쪽으로 내려오는데 내 발이 땅에 딱 닿는순간 길이 뚱 하고 울린 것처럼 내 속에서 울려오 는게 있었어요"

그는 발이 닿은 땅에서 천지개벽하 고는 때의 울림을 느꼈다고 했다. 몇 만 년, 몇 억년의 세월을 땅과의 부딪힘에서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사진들은 '지금 여기'라는 느낌을 소중히 담게 된다. 인물을 찍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이 란 인물을 담기 보다는 그 사람의 아

白民·장승등 '한국의 얼굴' 찾아 전국탐사 참선으로 '보는 눈' 확대...퇴직후 출가 결심

조각가에서부터 인간문화제에 이르기 까지, 자기 세계를 갖고 있고 가장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의 얼굴들을 포착한 것이 8년 여, 그러나 왠지 허전해졌다. 그의 관심은 백민(白民)으로 넘어간다. 이름없고 비속하고,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는 없지만 정직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토박이 민중들.

그때부터 그는 문명화되거나 서구 화되어지지 않은 한국인의 원형을 찾아 전국를 헤맨다. 청학동으로 제주도로, 발신국이 열리는 등해로, 또 향교로... 이때 많이 찍은 것이 농민들 어부들이며 무당들 이다. 굶은 주름 또는 경계 그늘진 살갗을 주저 떨려주는 눈빛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스님을 얼굴에서도 한국인의 원형을 보았다. 운허·구산·벽초·해암·법정스님 등 도 주저 떨려주는 눈빛이

버지 아버지 또 그 아버지, 그 먼 조 상에까지 이어져 있는 인연을 상기하 게 되는 것이다.

연세대 영문과를 나온 그가 사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신혼여행에서 부인 이 가져온 카메라 때문이었다. 취미삼 아 배웠지만 타고난 감각이 탁월한 때문인지 카메라 찍는 법을 배운지 6 개월만에 촬영대회에 나가 상을 타게 된다. 그리고 또 6개월만에 '아이들' 을 찍은 사진으로 국제사진대회에서 입선했고, 2년후에는 노인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으로 최고상을 탔다.

동아사진콘테스트까지 휩쓴 그는 당시 4년제가 된 서라벌 예대에서 강 의 요정을 받게 된다. 그때부터 강단 에 서며, 사진작가로서 외길을 걸어오 게 된다.

육명심씨는 매일 새벽 2시50분에 일어나 3시부터 두시간씩 참선에 몰입하고 있다. 불교에 정식으로 입문한 지난 91년부터 시작한 참선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다. 역삼역 근처 오피스텔에 꾸며 놓은 선방에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참선에 몰두

하곤 한다. "참선이 즐겁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에게서 열린 시간이며 우주로 시야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는 대학다닐 때 전공이 영문학이 었지만 동양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철학강의를 많이 들었다. 노자 장자 등 도교뿐 아니라 유교 기독교까지, 그리고 단전호흡 육선도 인도명상까지 섭렵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붓 뜨는 등 속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만두었다. 요사스러운 것을 멀리 하려는 본능적인 경계심 때문이다.

육명심씨는 이 모든 것을 불교와 정식으로 만나기 위한 오랜 정신적 전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부터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종교적 세계 그리고 신비주의를 거쳐 마치 회화하 듯 자연스럽게 불교세계에 입문하게 된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불교를 알기 전에는 금방어가 어항 안에서 밖을 보고 밖을 향하듯 했는 데 이제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것

이다. 그는 더이상 한국적인 것, 토박이 들을 찾아다니거나 하지 않는다. 뉴욕의 엠플어 스테이트 빌딩을 찍고 파리의 최첨단 패션쇼를 찍더라도 한국적 시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적 사진이다 라고 사고의 개념이 바뀌었다.

우리 정신과 문화의 뿌리인 불교야말로 가장 한국적이고 생명력있게 하는 정신의 원류임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는 정식으로 불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무얼 찍겠다는 생각이 없다. 불교사진을 찍어야 하고 불교적 소재를 찾아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경이심으로 자기자신을 만나 듯 진실한 표현으로 누구나 불교적인 것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그는 이제 대상 선정에도 자유롭다. 자연스럽게 피사체와 자신이 합일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렌즈에 담아 걸림없이 표현하고 싶다.

그는 사실 꿈을 아직 못 이루었다. 국민학생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남몰래 이루기를 바랐던 꿈. 비록 어머니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말았지만 그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것은 "스님"이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정년퇴직 후 출가를 하고 싶다. 그 꿈은 마치 오랜 동안 방황하다 고향에 돌아온듯 자연 스럽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이경숙 기자)

無上大道는 사람마다 본래 平等하게 지닌 宇宙大光明의 無限한 能力을 말한다. 世界化時代를 맞이한 全人類는 大道를 배워 人間의 無限에너지를 開發하여 世界를 새롭게 하는 大道文化를 實踐해야 한다.

共產主義를 비롯한 西洋思想은 용도폐기되었다. 이제는 東洋의 無上大道思想으로 人類를 大活하여 世界를 새롭게 할 때이다.

儒敎의 「大學」은 東西洋 經典中 大道를 世間道學의 次元에서 體系的으로 가장 잘 밝힌 前無後無한 大名著作이다. 이 「大學」을 佛敎의 最高次元인 一乘哲學으로 千古에 돌도 없는 注釋을 한 智旭大師의 「大學直指」를 東洋三國에서 唯一하게 儒佛仙 三敎로 會通한 覺性스님이 獨步的인 名講解를 한 「大道直指」는 韓國出版史上 大道를 가장 잘 밝힌 大名著作로 記錄될 것이다.

統和叢書 第一集 「大道直指」를 發刊하면서

지금 세계는 最尖端의 變革을 향하여 鎭은 안개속으로 暴走하는 奔馬와 같아서 懸崖勒馬의 非常한 救出이 없으면 人類의 내일은 없을 것이다.

大道는 宇宙萬有的 本體이며 唯一無二한 人間生命으로서 죽어도 죽지 않는 實體本體이다. 根本이 어지럽고 末端이 다스러질 수 없음을 天地가 억만번 변해도 바뀌지 않는 鐵則이다. 인류가 大道本體를 잊어버리고 忘本招魔으로 天下大亂을 自招했다. 天下大亂을 平定하고 인류를 大活할 方法은 「大道本體를 세우는 一大事」 한 길만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없다. 먼저 自己의 無形인 大道를 제대로 밝히면 그 결과는 有形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宗教, 哲學, 道德, 性理學이 自己의 大道를 밝히는 明白와 大道를 깨닫게 하는 明他밖에 없다.

孔子의 孫子인 子思子께서 著述한 「大學」은 明明德·親民·止於至善인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哲學을 총정리한 儒敎綱領이며, 世間道學의 次元에서 大道를 체계적으로 잘 밝힌 前無後無한 大名著作이다. 그 「大學」을 佛敎의 最高次元인 一乘哲學으로 千古에 돌도 없는 最善의 注釋을 남기신 智旭大師의 「大學直指」와 朱子, 程子(伊·川)가 잘못 해석한 「大學」注釋을 많이 바보잡은 王陽明先生의 「大學問」을 지금에 儒·佛·仙 三敎로 會通한 覺性스님이 唯一無二한 獨步的인 名講解로 大道를 밝힌 名著가 곧 「大道直指」이다.

돌이켜보면 대 眞理를 일찌기 세상에 알려주신 元曉大師와 海東孔子 薛聰이 신라의 찬란한 文化를 꽃피웠다. 그러나 孔子의 根本眞理를 깊이 통달 못했던 程朱學에 平生을 바친 李朝의 儒學者들은 이러한 「大道直指」를 만날 수 없었다. 그 大道를 알기 쉽게, 빠른 길로 명료하게, 잘 밝힌 「大道大衆化」를 보여준 「大道直指」의 發刊은 세종대왕의 「文字大衆化」를 이룬 한글創製와 더불어 韓民族史上 大發展이며 크나큰 慶事라 할 것이다.

「大道直指」의 出現은 東方聖者들의 「統和大道」의 共同宣言書로서 天上天下에 제일 높고 깊고 넓은 大道가 이 땅에 밝아지는 시작이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할 때이다. 大道의 眞諦가 된다. 머지않아 大道의 해가 뜨는 새 아침이 온다. 한국은 해 뜨는 東方의 나라, 고요한 아침에 빛나는 나라로 일컬어져 오지 않았던가.

아침에 빛나는 나라의 七千萬 동포여!

우리나라 歷史上 처음으로 누구나 쉽게 大道를 接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어질고 착하고 잘 참는 韓民族만이 겪어온 千死萬難의 試練의 代價로 얻어진 無量大福이며, 韓半島에서 東方의 大道를 본래상수하여 南北統一과 함께 世界萬邦에 大道를 發信하는 大道宗主國이 되어 地球村에 統和世界의 太平洋時代를 여는 中心役割을 하라는 世界史的 至嚴한 使命이기도 하다.

大道를 터득하면 저절로 人力·資源·技術의 三大開發을 이루게 되어 온 인류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經濟力을 保有할 수 있다. 그리고 自由·平等·博愛·平和와 眞善美 등 最大幸福을 이루는 統和體로서 萬有的 常樂郷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世界統和의 大道時代가 일찌기 된은 人類史의 必然的 事實이다. 그러므로 大道의 原理를 모르고 世界化를 이룩한다는 것은 蒸砂作飯이다. 지금 세계는 大道에 어두운 軍事, 政治, 經濟, 宗教, 眞理, 文化 其他 여러 分野의 마피아 霸權主義者集團의 큰 마당이 되어 있다.

우리 國民뿐 아니라 全人類가 大道의 統和叢書를 보고 사람마다 본래 具足한 宇宙大光明인 平等大道를 깨달아 霸權主義者集團이 世界를 支配하려는 野欲을 종식시키자. 그리하여 한 사람의 敗者도 없이 모두 함께 勝者가 되는 大歡喜大圓滿의 統和大道世界를 이루고자 統和叢書刊行會는 앞으로 계속 東洋大道聖書의 講解本을 刊行할 것이다.



覺性스님

각성스님 경전강의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보급

- * 화엄경
- * 법화경
- * 금강삼매경론
- * 능엄경
- * 선관책진
- * 유식30송
- * 대학(대도)직지
- * 친태사교의
- * 중용직지

(특판 강의 완전수록, 자막처리)
문의처: 붓다의 메아리
전화(051)867-3861

우편판매 송금 온라인 구좌

(우체국) 601310-0034992 성영희
(국민은행) 104-24-0383-624 성영희
(부산은행) 021-02-046772-7 성영희

통화총서간행회

우편번호 614-031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화엄회관 2층 화엄학회)
전화: (051)816-3318
팩스: (051)802-5718

統和叢書 第一集

大道直指

子思 著
智旭 述
覺性 講解

신국판 688쪽
호화양장케이스
값 20,000원